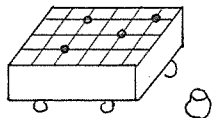


제 1 회 科總會長旗쟁탈 바둑大會 團體戰 特選譜



○ 오 무 근 <統計学会>
● 최 건 모 <科学技術処>
(제한시간 각 1 시간·덤 5 戸半)

제 1 보 (1~51)

<첫 會長旗를 걸고>

科学技術人들의 유대강화와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 1 회 大會가 막을 올린것은 지난 4 월 12일이였다.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구분하여 거행한 이번 대회에는 단체전(선수 3 인)에 21개팀, 개인전에 75명이 참가하여 한국기원대회장이 꼭 차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개회식에는 本聯合會의 閔寬植會長과 金東一 상임고문 그리고 科学技術処의 成佐慶長官, 李應善次官, 8冠王인 曹薰鉉國手와 徐奉洙名人등 내외귀빈이 다수 참석하여 大會를 더욱 빛내주었다.

결승에서 만난 두팀은 그동안 連勝을 거듭해왔다. 科技処는 1 회전에서 油公을 물리친데 이어 우승후보로 지목되던 藥師會와 KIST 를 連破했고 統計学会는 化学會와 湖油, 그리고 大田에서 올라온 核燃料開發公團을 차례로 눌러 영예의 회장기를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이게된 것이다.

이 판의 解説은 大會 심사위원이었던 沈宗植 五段이 말아 수고해 주었다.

黑 1 · 3 · 5 와 白 2 · 4 · 6 의 布石은 프로 기사들도 애용하는 포진법으로 이 布石은 대체로 장기전이 되는 경우가 많다.

黑 13 · 15 는 白이 19 의 곳에 붙여오는 수에 대비한 것이나 白이 즉시 18 · 20 으로 모양을 결정한 것은 의문으로 黑 21 이 두어지고보니 黑이

게 탄력이 생겼기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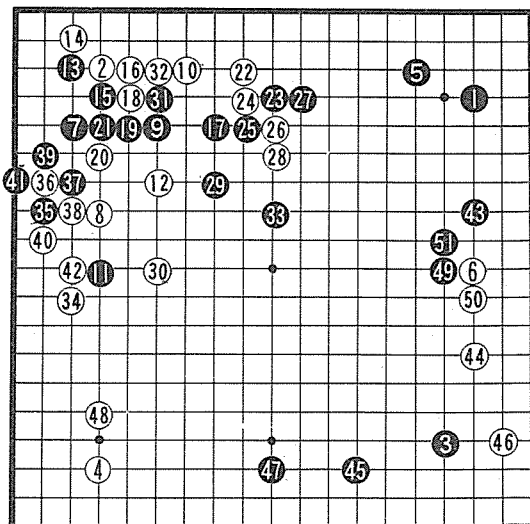
白 22 는 24 의 곳으로 높이두어야 高低의 리듬이 맞는곳. 그렇지만 黑도 25 로 당장 씨워간것은 급했고 여기서는 左下 귀에 먼저 걸쳐 좌변에서 근거를 잡는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했다.

白 34 는 모양의 급소이고 黑 35 는 利敵手, 黑은 11 의 한점을 가볍게 보고 활용할 생각인듯한데 白 42 까지 좌변이 굳어져서는 黑의 불만이다.

黑 43 은 큰 곳이며 白 46 까지 물이 흐르는 듯한 진행인데 뒤이어 하변에 벌려간 黑 47 은 너무 좁았다.

하변을 둔다면 한칸 더 가고 4 선으로 높이두는 게 좋았다고 沈五段은 강조하고 있었다.

제 1 보 (1 - 51)



黑49·51은 상변을 통채로 차지하겠다는 뜻인데 좌변이 白의 지역으로 굳어있는 현재의 판세로는 당연한 기백으로 보인다.

제 2 보 (52~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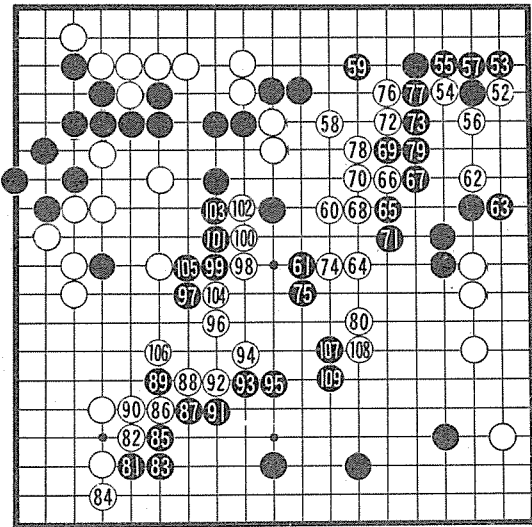
〈黑·形勢를 만회〉

白은 52에 붙여 黑의 응수를 물은후 56까지를 활용하고 58·60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기적절한 조치였다. 그러나 白62로 黑63을 불러놓고 64로 탈출에 급급한 것은 이해가 안가는 수로 이왕 62를 두었으면 67에 뛰어 제자리에서 살길을 찾는게 바람직했다.

黑65가 형세를 만회한 급소의 일격이었다.

白은 할수없이 66이하 74까지 연결하여 중앙으로 진출하였으나 黑79까지 우변에 큰집을 허

제 2 보 (52~109)



락하여 불만이다.

黑81은 상용수법이며 白82·84는 81에 대한 정수이다. 그러나 88로 계속 쫓힌 것은 과했다.

黑97이 날카로운 급소, 白은 98로 반격해 보았으나 黑99로 응수하니 白100으로 黑101 자리에 반발할 수 없는곳, 결국 106으로 지킬 수밖에 없어 좌변이 크게 줄어들고 말았다.

본보는 黑의 독무대같은 느낌으로 판세는 다시 백중지세로 어울렸다.

제 3 보 (110~180)

〈會長旗는 統計学会로〉

白10은 반면최대.

黑15도 좋은 곳이지만 좌하귀를 꽉 막아 하변을 지키고 싶다.

黑19는 의외로서 패착이나 다름없다고 沈五段은 지적했다. 그보다는 21의 곳에 두는게 더욱 실속이 있었다는 評이다. 白20이 黑으로서는 아픈 곳.

그리고 黑37도 상변 白2 점을 잡아야 했다. 어쨌거나 沈五段은 이 부근에서 승부가 결정되었다며 白38까지 되어서는 아무래도 黑이 덤을 내기가 어려운 형세라고 지적했다.

이 판을 白이 이기므로서 통계학회는 2대 1로 승리하고 영예로운 첫 우승과 함께 會長旗를 차지하게 되었고 2位는 科技社, 3位는 KIST로 決定되었다.

무릇 大會를 하나 창설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닌가보다. 대회가 성황리에 개막될수 있도록 후원하여 주신 東洋나이론(株)의 襄基股社長과 三千里産業(株)의 李壯均會長께 감사드립니다. (180수 이하 즐임, 白·2戶半勝) (光).

제 3 보 (110~)

